

우리 민족의 일생의례에 미친 불교의 영향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구미래 지음
민족사 펴냄
2만8천원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의례'를 치르며 산다. 책은 우리 민족이 수용한 불교와 우리민족의 일생의례, 즉 불교적 영향력 속에서 치르는 일생의례에 대한 연구다. 책은 종교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된 측면에서의 일생의례가 아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민족화된 불교, 민간에서 적극 수용한 불교를 통해 출생, 혼례, 회갑례, 상례, 제례의 다섯 가지 주제의 의례양상을 다뤘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삶의 중요한 시점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담은 그림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성인(聖人)의 출생을 드러내는 다양한 전조(前兆)가 나타나 있다.

식이기 때문에, 일생의례를 보면 삶의 각 단계를 그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교 일생의례를 다룸에 있어 출생, 성인, 혼인, 노년, 죽음 등을 불교에서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례 속에서 그러한 관점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책은 "실제 한국불교의 일생의례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불교의례는 주로 사후에 집중되어 있고, 출생이나 혼인처럼 삶의 각 단계에서 치를 수 있는 의례기반은 빈약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교 일생의례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역사적 검토는 물론 총체적, 체계적 접근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규범화된 의례에 중점을 두으로써 일생의례가 민간의 역동적 삶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불자들이라 하더라도 일생의례는 불교의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자생적 신앙 방식에 의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교 일생의례의 내용은 보다 넓고 다채로워질 것이며, 민간의 삶으로 눈을 돌렸을 때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다양한 양상을 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생의례에 대한 연구는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주 대상이었다. 간혹 출생을 포함하긴 했지만, 환갑을 맞이하여 노인이 되는 시기를 다룬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일생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과 그 동안의 일생의례가 <주자가례>의 관혼상제에 얽매어 있었던 영향도 크다.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더 발전하여 출생으로부터 혼례, 회갑례, 상례, 제례의 다섯 가지 주제를 다뤘다. 이러한 다섯 가지 단계를 각 장에서 교리적 접근과 부처님의 일생, 역사적 접근, 의례적 접근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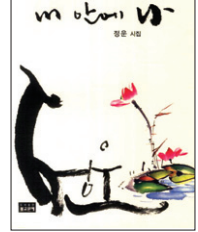
시도했다. 기존의 경전과 관련 문헌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민속지(民俗誌), 생활문물, 구술채록 등과 같이 새로운 차원의 자료를 분석해 불교 일생의례의 다면적인 모습을 새롭게 발굴 분석했다. 특히 생활 불교의 전승 현장인 사하촌을 조사하여 불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진 일생의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불교 일생의례를 둘러싼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의례가 탄생했는지 밝히기 위해 의례 자체만이 아닌 의례를 둘러싼 속설, 담론, 작품 및 종교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연구했다.

특히 의례에 대한 분석은 물론 역사적, 민족적 양상을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노력했다. 이를테면 출생의 단계에서 미륵을 마물로 내려오게 만든 기차신앙의 양상, 제석의 다양한 변용과 수용, 마을을 찾는 탁발승을 둘러싼 출생담론 등은 민속불교의 역동성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들이다. 혼인과 성인(成人)의 단계에서는 혼인이 '물리적, 사회적 어른 되기'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실존적 어른 되기'임을 부처님의 행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가 왕성했던 고려시대와 이후 갈등 관계에 있던 조선시대의 상황을 통해 불교의 일생의례에 대한 수용과 배척의 다면적 역사를 다뤘다. 특히 상례에서는 '임종-빈소-장지-탈상'에 이르기까지 의례 단계별로 새로운 접근을 하고 탈상의례로서 사십구제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고찰했으며, 제례의 경우 고려시대 불교에서 유교보다 먼저 기제사를 활발하게 치렀던 기록 등을 분석했다.

책은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일생의례를 인식함으로써 오늘날에 맞는 불교 일생의례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원 기자 wanhillo@hyunbul.com**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삶이 부르는 노래

내 안에 나



정운 지음
불교문제 펴냄
8천원

걷는다.
입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중얼거리는 주려소리에
호랑나비도
풀잎도
둘부리도
꽃잎도
함께 반기며 인사한다.

'운동하시네요'
오늘은 한 번만 나오셨네요.
오늘은 두 번만 나오셨네요.
오늘은 세 번 나오셨네요.
지나는 길을 기억하는
그들의 눈짓 위에
신중님이 따로 없고
경쟁하는 도반이 따로 없는
일개음 속에
나는
매일 매일 그 길을 걷는다. <포행길>

지난 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선도, 보호활동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오랜 세월 청소년부교에 전념해온 정운 스님의 다섯 번째 시집이다. 한서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스님은 세월사 주지와 보령시 청소년연합회 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등 누구보다 고단한 삶의 행로를 택해 살면서도 그 길 뒤편에서는 시를 품고 살았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라는 척박한 땅을 딛고 선 이순(耳順)의 스님은 그 땅에서 시를 틔우며 12년 만에 시인 '정운'을 다시 불러냈다.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성장들을 구도자의 언어로 형상화했다.

"시를 품고 살아가는 일은 / 내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하나의 질서이다. / 그 질서는 곳곳하게 자리 지키면서 / 나를 긍정스럽게, 고통스럽게, 참담하게 / 나무라기도, 부지런하게도 만들었던 단 하나의 내속에 / 나의 의식이었다. <중략> 빙자한 언어가 사리(舍利)되어 알알이 빛난다 하여 / 농축된 내 심장의 박동소리는 꽃소리가 될 수 있을까마는 / 육십에 부르는 노래는 /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 나의 삶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문처럼 시작하는 첫 시에서 그는 고백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에서 시인은 시에게 고행의 길을 묻는다. "무수한 생각으로 / 만들어낸 / 언어들을 / 함축한 일상의 영혼이 / '삶'의 문을 열 때 / 나는 말 할 수 있으리라 / 내가 아프니까 / 나도 아프다고 - 시에게 고행을 묻다" 그에겐 아직 고단한 길이 남아 있음이다. 내 안의 나를 찾아 나선 시 69편이다. **박재원 기자**

'의례'는 삶의 변화 알리는 것

불교 영향 크지만 관심·연구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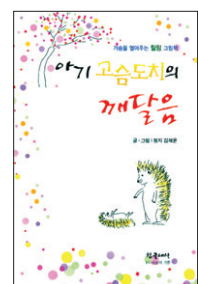
속설, 담론, 종교적 행위 등 포괄적 연구

불교 일생의례의 지침서 기대

깨달으려 하지 말고 깨달음을 꺼내 쓰면 '1분 해탈'

아기 고슴도치의 깨달음

글·그림·형지 김재운 | 참글세상 펴냄 | 1만3천원



'가슴을 열어주는 힐링 그림책', 책의 부제다. "장병들에게 띄우는 글"로 군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불교상담개발원 '마음산책'으로 삶에 지친 사람에게 힐링을 선사했던 형지 김재운 법사의 글 모음이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 뒤엔 '견딜'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

"네 몸의 가시는 엄마의 선물이란단다. 그리고 엄마 몸의 가시는 할머니의 선물이고, 우리 이렇게 대대로 선물을 받고 태어난다. 이 가시가 누군가를 찌르면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잘 살피면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이란다. 평생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받은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나. 날카로운 가시 덕분에 우리 더욱 성숙한 삶을 살게 된 거야. 다른 이들은 비록 우리처럼 가시로 찌르는 일이 없겠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예리한 가시로 다른 이들을 찌르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단다." 그리고 엄마는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아기 고슴도치에게 이야기한다.

"가시에 찌리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만 아프지만, 더 아픈 가시는 말로 찌르는 것이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은 함부로 말을 하여 상처를 주고, 결국 그 아픔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는 이들도 많단다. 너 역시 다른 아이들이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엉엉 울고 들어온 거잖나? 그러니 결코 너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거친 행동을 하지 마라. 항상 누

"애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마음껏 울어라. 네가 울고 싶은 만큼 최선을 다해 울어라."
온 몸에 돌아난 가시로 인해 왕따를 당해 괴로워하는 아기 고슴도치에게 엄마 고슴도치는 말한다. 실컷 울어버리라고. 아기 고슴도치는 엄마 고슴도치의 품에 안겨 실컷 우는 것으로 위로받는다. 그리고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왜 나보고 울라고 해? 다른 때는 항상 울지 마라, 울지 마라하면서?"
"이제 너도 어른이 돼 가고 있지 않나?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6 ~ 1/2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자공헌자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생앤파크스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개정정보판)	김재웅	웅화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도	
깨달음	법륜	정도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욱	공감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불서출판 운우사 제공

www.unjusa.com
운우사 (02)3672-7181

즐거운 병영 생활 마음수련 지침서!

어떻게 2년을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나를 억압하는 시간이 될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지 그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을 보냅니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법당 300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중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s.org ·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은전한 삶의 지혜가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헤가지면 시드나니,
명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마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계 · 딘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256쪽 | 13,000원 | 사륙판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히말라야 스님의 100가지 지혜
이제부터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